

용서구하기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용서구하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험이 있는 20-50대에 이르는 전국의 성인 남녀 97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용서구하기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분노 척도, 불안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용서구하기 척도는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와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척도는 양호한 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간격)를 보여주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는 2요인(긍정적 전략과 부정적 전략)이고,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는 1요인으로 나타났다.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1문항 용서구하기 질문에서 더 많이 용서를 구했다고 대답했고, 용서구하기 집단은 비용서구하기 집단보다 전략과 결과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와서 용서구하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는 외적 준거관련 변인들(삶의 만족도, 분노, 불안, 우울)의 점수들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구하기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20-50대에 이르는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용서구하기 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5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영희, (01369) 서울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인간관계 갈등은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개인과 관계의 성장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인간관계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전 생애에 걸쳐 자녀들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갈등은 자녀들의 발달 지연, 학업실패,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과 관련이 있었다(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김현수, 김현실, 2001, 2002; 박영신, 김의철, 2004; Burt, Krueger, & McGue, 2003; Laible, 2000; Warrick-Swansen, 1999).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용서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 신학, 철학, 문학 등의 문헌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경험적인 결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용서가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면 분노, 우울, 불안 등이 감소되고, 신체건강, 자아존중감, 희망, 정서적 안정성이

증가되며, 더 나아가서 악화된 인간관계가 향상된다(박종호, 2003; 오영희, 2007; Controneo,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용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용서연구의 선구자인 Enright (2012/2014)는 용서구하기, 용서하기, 화해하기가 용서의 삼각형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상처를 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그 후에 두 사람이 함께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화해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서하기와 용서구하기는 용서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서에 관한 연구는 용서하기에만 집중되었고,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영희, 2015a). 첫째, 용서는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는데, 그 갈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쌍방향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하여 상처를 주었지만, 상처를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적 피해자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이다¹⁾.

둘째, 용서구하기는 상처를 입힌 가해 당사자의 치유와 발달에 도움을 준다. Gassin(1988)의 연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고 난

1) 공격적 피해자는 피해/가해자라고 하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된 것이다.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나 단순 피해자 집단보다도 학습, 사회, 심리 그리고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심각하게 취약한 집단이고,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위험한 집단이다(박종호, 2011).

후에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용서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감이 많아지고, 인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고, 자기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치유하고 더욱 성숙해 졌다.

셋째, 가해자의 용서구하기는 피해자의 용서하기를 도와준다. 김기범과 임효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사과와 뉘우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키고 회피 및 보복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용서하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용서구하기는 상처로 인해 파괴된 대인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가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화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오영희, 2015a; Enright, 2012/2014; Gassin, 1988).

마지막으로 용서구하기는 범죄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 사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범죄의 처벌을 위주로 하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등장한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아닌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보며,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관련당사자들이 모여서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는다(김준호 외, 2013; Zehr, 2005/2010). 회복적 사법은 사법절차에 대한 만족도, 가해자의 재범억제력, 피해자의 치유경험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King, 2003/2006; 김은경, 2009).

최근 우리나라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김은경, 2009; 김은경, 이호중, 2006). 학교폭력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시키는 회복적 사법은 처벌위주의 응보적 사법보다는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실제로 김은경과 이호중(2006)이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학교폭력 해결 방법은 보복적 처벌이나 금전 피해배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 즉 가해자의 용서구하기가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용서구하기로 시작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복적 사법의 과정은 범죄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가해자의 용서구하기 → 피해자의 용서하기 → 화해하기’로 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용서구하기는 회복적 사법의 출발점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는 촉매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먼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피해자도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상호신뢰를 회복하면서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김기범과 임효진(2006)의 연구를 보면 가해자의 사과가 용서하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가해자의 뉘우침과 용서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구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용서구하기는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처를 입힌 가해 당사자의 치유와 발달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의 용서하기를 도와주고, 악화된 대인관계도 개선시켜 준다. 특히 범죄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고 안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회복적 사법의 시작이고, 피해자의 용서하기와 상호 화해하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Zehr, 2005/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연구는 용서하기에만 집중되어 왔고,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용서구하기에 대한 용어의 사용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Enright 등은 용서에는 ‘용서하기’, ‘용서받기’, ‘자기용서’라는 세 가지 구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서받기(receiving forg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Enright, 1996). 그러나 Enright (1996)이 연구한 용서받기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보다는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용서해 주어서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구하기와 용서받기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Sandage, Worthington, Hight와 Berry(2000)는 ‘용서구하기(seeking forgiveness)’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상처를 입힌 후에 도덕적 책임감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동기’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용서구하기는 다차원이며 다음과 같은 구

성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인지적인 조망 능력 또는 공감; ② 적응적인 죄책감이나 건설적인 슬픔과 같은 비방어적인 도덕적 정서; ③ 사과, 고백(변명, 합리화, 부인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 배상과 같은 다양한 보상 행동들. 이와 같은 Sandage 등(2000)의 용서구하기에 대한 접근은 상처를 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종효(2012a)는 Enright(1996)과 Sandage 등(2000)의 연구를 활용하면서 ‘용서구하기(seeking forgiveness)’를 ‘용서받기’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서받기’라는 용어는 가해 당사자에게 구차함이나 열등감을 내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용서구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용서구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되고(Davidson & Jurkovic, 1993), 부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Weiner, Graham, Peter & Zmuidinas, 1991), 사회적 고립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주관적인 괴로움을 겪게 된다(Baumeister, Exline & Sommer, 1998).

Gassin(1998)은 10명(대학생 9명과 중년 1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해서 용서구하기와 유사개념인 용서받기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유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은 용서를 받고 난 후에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결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증진, 죄의식에서 벗어남, 자기용서, 인간에

대한 중요한 통찰, 종교적 발전 등이 나타났다. 사회적(대인관계적)인 결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증가, 화해, 상처 주는 것을 피하기, 자기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책임지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등이 있었다.

오영희(2015a)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용서구하기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용서구하기를 한 후에 본인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변화는 좋은 변화로서 긍정적 감정 변화(편해짐, 기분이 좋아짐, 죄책감 감소 등), 본인의 개선(행동과 말을 조심함, 나쁜 습관을 바꿈), 상대방에 대한 배려증가, 관계가 유지되거나 더 가까워지는 것 등이 있었다.

이지연(2008)은 대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 모두가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박종효(2012b)가 대학생과 대학원생 3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용서하기와는 정적 상관이 있지만 용서받기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과 박종효의 연구결과가 다른 것은 두 연구자가 사용한 용서구하기 척도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연은 결과적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박종효는 용서받기 과정을 측정하였다.

박종효(2012b)는 용서받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가 죄의식이나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경우에 용서 비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용서 받기 그 자체가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어렵고 용서받기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는 의지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해자의 용서받기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용서받은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이지연(2008)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서구하기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들도 드물지만, 그 연구들에서 사용된 용서구하기 관련 척도들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지연(2008)과 이연수, 송민경, 김청송(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용서받기 척도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해상황을 제시하고 얼마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지만을 측정하고 있어서, 용서구하기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용서구하기를 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박종효(2012a, 2012b)의 연구에서 사용된 용서받기 척도는 Enright (1996)이 미국에서 만든 용서받기 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용서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경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nright이 만든 용서하기 척도인 EFI(Enright Forgiveness Inventory)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 문항들에 대해서 낯설고 부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용서하기 반응

들이 빠져있다(오영희, 2010). 이와 같은 문화적 부적절함이 외국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용서구하기 척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용서받기 모형에 근거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한 후에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용서구하기의 결과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Sandage 등(2000)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용서하기 문항을 참고해서 대인관계 갈등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로 구성된 54문항의 용서구하기 척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용서구하기가 아닌 용서하기 자료를 기초로 문항을 개발했고, 신뢰도(Cronbach $\alpha = .95$)만 보고했을 뿐 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은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용서구하기 척도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용서구하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히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용서구하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한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척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용서구하기 자료에 기초해서 문항들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구하기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후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구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일어나는 행위이다. 특히 용서구하기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상처보다는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용서구하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용서구하기 전략과 용서구하기 결과가 모두 포함된다. 용서구하기 전략은 가해자가 자신이 입힌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용서구하기 전략들이며 자기 잘못 반성하기, 사과하기, 보상하기 등이 있다(오영희, 2015a). 용서구하기 결과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해자의 변화로서 상처를 입힌 후에 자신에게 생겨난 부정적 반응들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 반응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의 반응은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처와 관련된 나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감소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정서, 인지, 행동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오영희, 2011).

이와 같은 용서구하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용서구하기 척도에는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를 모두 포함시켰다.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에서는 가해자가 상처를 입히고 난 후에 그 상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서구하기와 관련된 전략들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과거형으로 측정하였다.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에서는 용

서구하기를 하면서 일어나는 상처와 관련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현재형으로 측정하였다. 즉, 지금 현재 상처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항개발은 오영희(2015a)의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오영희는 우리나라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해서 용서구하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용서구하기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서구하기의 계기, 용서구하기에 도움이 된 것과 방해가 된 것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용서구하기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한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용서구하기의 과정에서 나온 응답들에 기초해서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 문항들을 만들었고, 용서구하기 결과에 대한 응답들을 바탕으로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 문항들을 만들었다.

용서구하기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 신뢰도와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척도의 상관, 1문항 용서구하기 질문과의 상관, 용서를 구한 집단과 용서를 구하지 않은 집단의 용서구하기 점수의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준거관련타당도는 용서구하기와 관련된 적응(삶의 만족도)과 부적응 변인들(분노, 불안, 우울)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용서구하기와 피해자의 용서하기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들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있는 20-50대의 성인 남녀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2015년 11월에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용서구하기 척도와 다른 척도들을 포함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본인과 다른 20대, 30대, 40-50대 친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삶의 만족도 척도, 불안 척도, 우울 척도, 분노척도, 용서구하기 척도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참여자 선정에서 상처의 기준은 “그 일로 인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상처를 받았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이다. 피해자 상처점수의 평균은 3.77(표준편차 .75)로 보통이상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1037명의 자료 중에서 일부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상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료를 제외한 972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특성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447	46.0
	여자	525	54.0
연령	20대	403	41.5
	30대	279	28.7
	40-50대	290	29.8
거주지역	서울	375	38.7
	경기도	306	31.6
	충청도	62	6.4
	전라도	96	9.9
	경상도	126	13.0
	기타	3	0.3
학력	중학교졸업	9	0.9
	고등학교졸업	112	11.5
	대학교재학/중퇴	426	43.8
	대학교졸업	349	35.9
	대학원졸업	76	7.8
종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393	40.6
	불교	92	9.5
	기타	6	0.6
	무교	477	49.3

측정도구

용서구하기 척도.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척도를 포함하여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첫 번째 부분은 상처와 관련된 4개 문항으로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는지를 기술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친밀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두 번째 부분은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에 그것을 해결하

기 위해서 어떤 용서구하기 전략들을 사용했는지를 과거형으로 측정한다. 최종 문항은 12개이다 (긍정 7개, 부정 5개). 요인분석 결과 용서구하기 전략은 2개의 하위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인 ‘긍정적 전략요인’은 상처를 입힌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7개의 긍정 문항을 포함한다. 예로는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사과했다’,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2요인은 ‘부정적 전략 요인’으로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2) 용서구하기 척도의 개발과정은 ‘질차와 자료 분석’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의 최종 문항은 표 2에, 결과 척도의 최종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5개의 부정 문항을 포함한다. 예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는 싫었다’,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서구하기 전략 점수는 긍정적 전략 점수(범위 7점-35점), 부정적 전략 점수(범위 5점-25점), 총전략 점수(범위 12점-70점)라는 3개의 점수가 있다.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여서 긍정적 전략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이고, 부정적 전략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전략은 적게 사용한 것이다. 총전략 점수가 높으면 긍정적 전략은 많이 사용한 반면에 부정적 전략은 적게 사용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인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이 입힌 상처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내 마음이 편한 것, 상대방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사이가 나빠진 것 등이 있다. 최종 문항은 8문항이다(긍정 3문항, 부정 5문항). 각 문항에 대해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상처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이다(범위: 8점-40점).

마지막 부분에는 용서구하기 질문 1문항과 상대방의 용서에 대해 물어보는 1문항이 있다. 용서구하기 질문 1문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용서를 구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문항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를 구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방의 용서에 대해 물어보는 1문항은 “상처를 받은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거나 상대방의 용서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음’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이며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의 검사를 박종효(2012b)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총 5문항이며,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범위: 5-35점). 박종효(2012b)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4, 본 연구에서는 .87이 나왔다.

불안 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 검사 20문항,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 20-80점). 한덕웅(1996) 등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도 .94가 나왔다.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태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느끼는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10-40점). 전경구 등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92가 나왔다.

우울 척도.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 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극히 드물게')에서 4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20-80점). 전경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1이 나왔다.

절차와 자료 분석

용서구하기 척도의 개발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쳤다. 1단계는 1차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단계로 오영희(2015a)가 한국 대학생의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용서구하기 전략 22개 문항과 용서구하기 결과 16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2단계는 1차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용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이상 용서연구를 하고 있는 용서전문가 3명에게 문항 검토를 받아 일부 문항은 수정하고 전략에서 4개 문항과 결과에서 3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2차 예비문항은 용서구하기 전략 18문항과 용서구하기 결과 13문항이다.

3단계는 최종문항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단계로 2차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용서구하기 척도와 다른 척도들을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4단계는 문항선별단계로 2차 예비문항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문항분포와 문항-총점 상관(.30이상)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서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에서 3개 문항과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에서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3차 예비문항은 용서구하기 전략 15문항과 용서구하기 결과 9문항이다.

5단계는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용서구하기 전략 12문항과 용서구하기 결과 8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후 최종 문항들로 구성된 전략과 결과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s 22.0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χ^2 , Cronbach α , Pearson r , t 검증, F 검증,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는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결과 분석은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3차 예비문항인 1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87로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

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105, N = 972) = 4537.45, p < .001$. 척도의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초기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왔다. Scree 도표, 설명변량, 그리고 해석의 적절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2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사각회전시킨 후 요인부하량이 교차부하값을 보이는 3개 문항을 탈락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12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기준은 .40이상이다.

표 2.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1: 긍정적 전략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사과했다.	.832	.381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731	.323
상대방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711	.300
내가 준 피해에 대해서 보상했다.	.583	.219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505	.346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496	.323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432	.263
요인 2: 부정적 전략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는 싫었다.*	.374	.817
상대방을 최대한 피했다.*	.261	.698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면 나도 거부했다.*	.316	.589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었다.*	.332	.559
그 일은 그냥 물어주고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308	.468
고유치	3.66	1.19
설명변량	30.48%	9.94%
누적설명변량	30.48%	40.42%

* : 역산문항

1요인은 ‘긍정적인 전략’ 요인으로서 상처를 입힌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1요인의 고유치는 3.66이고, 설명변량은 30.48%이다. 2요인은 ‘부정적인 전략’ 요인으로서 상처를 입힌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요인의 고유치는 1.19이고, 설명변량은 9.94%이다. 두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0.42%이며, 두 요인의 상관은 .49이다.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3차 예비문항인 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yer-Olkin)지수는 .84로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tlett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28, N = 972) = 3169.98, p < .001$. 척도의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초기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개로 나왔다. Scree 도표, 설명변량, 그리고 해석의 적절성 등을 함께 고려

해 볼 때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고 사각회전시킨 후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1문항을 탈락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8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요인의 고유치는 3.27이고, 설명변량은 40.86%이다.

두 번째로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 결과 점수와의 상관을 구해 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두 점수간의 상관은 $r = .50(p < .001)$ 으로, 두 척도가 상관은 있으나 구분되는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했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구하기 점수(범위 1-5점)와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해 보았다. 1문항 용서구하기 점수는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의 $r = .68(p < .001)$,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와의 $r = .27(p < .0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용서를 구했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점수가 총전략 점수와의

표 3.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상대방을 보면 아직도 불편하다.*	.831
상대방과 사이가 나빠졌다.*	.794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746
아직도 그 일이 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8
아직도 내가 준 상처가 생각나서 힘들다.*	.536
그 일로 인해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527
상대방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499
내 생활에 다시 활력이 생겼다.	.426
고유치	3.27
설명변량	40.86%

* : 역산문항

표 4.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문항내적일치도

	1	1-1	1-2	2	3	4	5	6
1. 용서구하기 총전략 ¹								
1-1 긍정적 전략	.88***							
1-2 부정적 전략	.80***	.41***						
2. 용서구하기 결과	.50***	.31***	.55***					
3. 삶의 만족도	.16***	.14***	.14***	.24***				
4. 상태불안	-.15***	-.09**	-.16***	-.34***	-.62***			
5. 상태분노	-.17***	-.11***	-.17***	-.27***	-.35***	.56***		
6. 우울	-.19***	-.13***	-.20***	-.37***	-.57***	.76***	.60***	
평균	39.59	22.52	17.08	29.30	20.63	42.30	12.57	34.87
표준편차	8.75	5.72	4.66	6.27	6.01	10.37	3.99	9.10
문항내적일치도	.83	.81	.76	.84	.87	.94	.92	.91

1. 부정적 전략의 문항들은 역산처리 되어서 부정적 전략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전략을 적게 사용한 것이다. 총전략 점수가 높은 것은 긍정적 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전략은 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N = 972, ***p* < .01, ****p* < .001

상관이 매우 높고,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와는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여준 것은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가 용서구하기 활동을 잘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마지막으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가 용서구하기 집단과 비용서구하기 집단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문항 용서구하기 점수를 이용해서 용서구하기 집단(4점 이상)과 비용서구하기 집단(2점 이하)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전략과 결과 점수에서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의 경우 $t = 26.30(df = 611, p < .001)$ 이었고, 용서구하기 집단(평균 46.15, 표준편차 6.83)은 비용서구하기 집단(평균 35.60, 표준편차 7.14)보다 용서구하기 전략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의 경우 $t = 8.54(df = 611, p < .001)$ 이었고, 용서구하기 집단(평균 31.19, 표준편차 6.20)은 비용서구하기 집단

(평균 26.71, 표준편차 6.65)보다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가 적응과 부적응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 분석해 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용서구하기 전략은 모든 적응과 부적응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r = .16$, 상태불안 점수와 $r = -.15$, 상태분노와 $r = -.17$, 우울과는 $r = -.19$ 의 상관이 있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용서구하기 결과도 모든 적응과 부적응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용서구하기 결과와 삶의 만족도는 $r = .24$, 상태불안과 $r = -.34$, 상태분노와 $r = -.27$, 우울과는 $r = -.37$ 의 상관이 있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용서구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용서구하기의 결과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불안과 분노와 우울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해자의 용서구하기가 피해자의 용서하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상대방이 얼마나 용서해 주었느냐는 1문항 질문에서 ‘모르겠음’에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한 뒤에 피해자의 용서하기 점수와 가해자의 용서구하기 점수들 간의 상관을 구해 보았다. 피해자의 용서하기 점수는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는 $r = .50$,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와는 $r = .60$ 의 상관이 있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 용서점수(범위 1-5점)를 이용해서 용서받은 집단(4점 이상)과 용서받지 못한 집단(2점 이하)으로 나누었다. 용서받은 집단과 용서받지 못한 집단 간에 전략과 결과 점수에서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의 경우 $t = 13.92(df = 477, p < .001)$ 이었고, 용서받은 집단(평균 44.25, 표준편차 7.65)은 용서받지 못한 집단(평균 32.44, 표준편차 7.55)보다 총전략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의 경우 $t = 18.54(df = 477, p < .001)$ 이었고, 용서받은 집단(평균 32.97, 표준편차 4.87)은 용서받지 못한 집단(평균 22.39, 표준편차 6.00)보다 결과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요컨대 가해자의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는 피해자의 용서하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최종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12문항)의 Cronbach α 는 .83이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39~.67의 범위에 있었다.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8문항)의 Cronbach α 는 .84이고, 문항-총점간 상관은 .41~.69의 범위에 있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47명에게 4주 간격으로 용서구하기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는 $r = .75$,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는 $r = .82$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분석 1: 상처를 입힌 피해자의 유형과 용서구하기와의 관계

참여자가 상처를 입힌 피해자의 유형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 N = 875) = 68.76, p < .001$. 표 4에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는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제일 많았으나, 30대는 친구와 가족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40-50대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제일 많았다. 그런데 30대와 40-50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이성친구(부부)의 범주도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개의 범주를 합치면 피해자의 약 50%는 가족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30대와 40-50대의 경우는 직업과 관련된 피해자가 20대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타를 제외한 4개의 상위범주를 이용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용서구하기 결과에서는 유의

표 5. 피해자의 유형¹

피해자	20대	30대	40-50대	전체
	% (n)	% (n)	% (n)	% (n)
친구	39.1 (153)	25.9 (68)	13.8 (38)	27.8 (259)
이성 친구(부부)	21.0 (82)	21.3 (56)	17.4 (48)	20.0 (186)
가족 ²	23.5 (92)	27.0 (71)	37.7 (104)	28.7 (267)
직업 관련자 ³	11.0 (43)	20.0 (53)	24.3 (67)	17.5 (163)
기타 ⁴	5.4 (21)	5.6 (15)	6.8 (19)	6.0 (55)
계	100.0 (391)	100.0 (263)	100.0 (276)	100.0 (930)

1. 단순응답

2. 부부를 제외한 가족(부모, 자녀, 시집식구 포함)

3. 직업관련자는 학생은 동료 학생, 학교 선후배, 교수 등 학교생활 관련자이고, 직장인은 동료, 직장상사, 부하직원 등 직장생활 관련자

4. 이웃, 친목모임, 낯선 사람 등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략 중에서 긍정적 전략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F(3, 871) = 9.8, p < .001$. Scheffe 검증을 통해 집단간 평균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친구, 이성친구, 가족)의 경우에는 직업관련자보다 더 긍정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높고($r = .09, p < .01$), 결과 점수는 더 낮았다($r = -.18, p < .001$). 그리고 피해자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r = .27, p < .001$)와 용서구하기 결과 점수가 더 높았다($r = .19, p < .001$).

논 의

기타분석 2: 다른 관련 변인들과 용서구하기의 관계

용서구하기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간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 결과점수의 평균을 각각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별(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어서 일원변량분석을 해도 총전략 점수와 결과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처를 입힌 후 경과한 시간(범위 1일-12775일)은 용서구하기 전략이나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자의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는 더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용서구하기 척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성인들에게 적합한 용서구하기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았다. 용서구하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구하기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3이고, 결과 척도는 .84였다.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상관계수)는 전략 척도가 .74이고,

결과 척도는 .82였다. 이것은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척도가 비교적 문항내적으로 일관되고 시간적으로 안정되게 해당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용서구하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척도에 대해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는 긍정적 문항들이 묶인 '긍정적 전략'과 부정적 문항들이 묶인 '부정적 전략'이라는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용서구하기를 할 때는 긍정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는 1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상처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적 변화가 뚜렷이 구분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영희(2010, 2011)도 한국인 용서하기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용서를 하고 난 뒤의 반응은 1요인으로 나왔으며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의존적이며 총체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서구하기 총전략 점수와 결과 점수의 상관은 .50으로 나와서, 전략과 결과 척도가 유의한 관계는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1문항 용서구하기 질문은 용서구하기 전략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68)을 보여서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가 실제로 참여자들이 하는 용서구하기 활동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1문항 용서구하기 질문은 용서구하기 결과점수와도 전략점수만큼 높은 상관은 아니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27).

셋째,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적응

지수인 삶의 만족도와 부적응 지수인 분노, 불안,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는 삶의 만족도와는 .16 ~ .24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 불안, 우울과 -.15 ~ -.37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용서구하기는 피해자의 용서구하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 구성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서연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용서구하기와 적응과의 관계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 변인들(분노, 불안, 우울)은 용서구하기 전략과는 -.15 ~ -.19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용서구하기 결과와는 -.27 ~ -.37의 상관을 보였다. 적응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용서구하기 전략과는 .16, 용서구하기 결과와는 .24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용서구하기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지연(2008)의 연구에서 용서받은 경험은 대인신뢰감과는 .18, 심리적 안녕감과는 .2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박종효(2012b)의 연구에서 용서받기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은 .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용서구하기와 적응변인들이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상처를 준 것이 가해자 본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언제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주었는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상처준 것이 본인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 어떻게 용서를 구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따라 용서구하기와

적응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서구하기와 적응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세 개의 시사점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시사점은 가해자의 용서구하기와 피해자의 용서하기의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는 피해자의 용서하기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가해자가 용서구하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피해자가 용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가해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사점은 상처의 심각성과 용서구하기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용서구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용서구하기 결과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이 준 상처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실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애초에 상처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사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용서구하기와의 관련성이다. 참여자가 피해자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의 평균차이를 분석해 보았더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용서구하기 척도개발과 타당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상황 관련 변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서구하기와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변인들의 인과관계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와 실험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용서구하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략과 결과 모두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용서구하기와 연령과 성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비일관적이다. Sandage 등(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용서구하기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성별은 연구변인이 아니었다). 이연수 등(2011)이 중고등학생(중1-고2)을 대상으로 한 용서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박종호(2012a)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났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용서받기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용서구하기와 연령과 성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는 종교의 유무나 종교의 종류(기독교, 불교, 무교)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andage 등(2000)의 연구에서도 종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용서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용서하기와 종교와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서구하기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andage et al., 2000). 따라서 앞으로 용서구하기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상처를 준 피해자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20대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친구와 가족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40-50대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라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연구들은 특히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오영희, 2007, 2015b). 왜냐하면 가족은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상처는 그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증오를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대가 23.5%, 30대는 27.0%, 40-50대는 37.7%였다. 그런데 30대와 40-50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이성 친구(부부)의 범주를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개의 범주를 합치면 피해자의 약 50%는 가족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용서구하기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대-50대에 해당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용서구하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성별, 연령,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척도는 20-50대의 성인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서구하기 전략과 결과를 별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척도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용서구하기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들이 상처를 준 후에 용서구하기와 관련된 중요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용서구하기 전략 척도를 사용하면 되고, 용서구하기의 필요성이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용서구하기 결과 척도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용서구하기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피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여 용서의 역동적이고 인과적인 관계를 탐색할 수가 없었다. 용서구하기와 용서하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른 다양한 개인적·상황적 변인들과도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단적 연구설계와 실험 연구 등을 통해서 용서구하기, 용서하기,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 적응과의 역동적이고 인과적인 관계를 자세하게 탐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서구하기로 시작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구하기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용 용서구하기 척도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용서구하기 척도와 다른 용서구하기 척도들, 그리고 용서구하기와 관련된 상황과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서구하기 척도의 점수를 산정하면서 부정적인 문항들을 역산처리 하였는데, 이 경우에 문항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었다'에서 1점('매우 그렇지 않다')받은 것을 역산처리할 때 이것을 상대방을 불신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김현수, 김현실 (2001). 제법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 40(2), 279-291.
-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유증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 김은경 (2009).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공식소년절차 참여집단과 '대화모임'참여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3), 239-272.
- 김은경, 이호중 (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이동원, 박정선 (2013). 청소년 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 박종효 (2011).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박종효 (2012a). 한국 대학생의 용서 빌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67-83.
- 박종효 (2012b).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26(4), 927-949.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오영희 (2015a). 한국 대학생의 용서구하기에 대한 조사. 청소년학연구, 22(1), 81-110.
- 오영희 (2015b). 상처의 뒷에서 행복의 꽃 피우기. 서울: 학지사.
- 이연수, 송민경,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용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173-195.
- 이지연 (2008).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ei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Baumeister, R. R., Exline, J. J., & Sommer, K. L. (1998). The victim role, grudge theory, and two dimensions of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ological speculations*(pp. 9-28). Philadelphia: The Templeton Foundation Press.
- Burt, S. A., Krueger, R. F., & McGue, M. (2003). Parent-child conflict and the comorbidity among childhood externalizing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5), 505-513.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pp. 241-244). New York: Brunner/Mazel.
- Davidson, L. L., & Furkovic, G. J. (1993). *Forgiveness and narcissism: Consistency in experience across real and hypothetical hurt situ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for 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Kansas City, KS, USA.
- Enright, R. D. (2000).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for Children*. Madison, WI: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Enright, R. D. (2014). 용서하는 삶-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The forgiving life: A pathway to overcoming resentment and creating a legacy of love*]. (김광수, 박중효, 오영희, 정성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2년에 출판)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Gassin, E. A. (1998). Receiving forgiveness as moral edu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and initial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1), 71-87.
- King, R. (200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Don't kill in our names*].(황근하 역). 서울: 산티.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Laible, D. J. (2000). *Parent-child conflict in the toddler years: Lessons in emotion, morality, and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Hight, T. L., & Berry, J. W. (2000). Seeking forgiveness: Theoretical context and an initial empiric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1-35.
- Warrick-Swansen, S. A.(1999). *Risk factors of comorbidity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and depressive disorders in school-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Winer, B., Graham, S., Peter, O., & Zmuidinas, M. (1991). Public confession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59, 281-312.
- Zehr, H. (2010).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Restorative justice*].(손진 역). 서울: Korean Anabaptist Press. (원전은 2005년에 출판)

원고접수일: 2016년 4월 7일

논문심사일: 2016년 4월 14일

게재결정일: 2016년 7월 28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orgiveness-Seeking Scale

Young Hee Oh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Forgiveness-Seeking Scale (FSS). We included 972 adults who had reported hurting others (age range: 20-60 years old). The measures included the FSS, Life Satisfaction Scale,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the CES-D. The FSS included the Forgiveness-Seeking Strategy Scale (FSSS) and the Forgiveness-Seeking Result Scale (FSRS).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FSSS and the FSRS were associated with relatively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estimate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suggested that the FSSS had two factors and the FSRS had one factor. Both the FSSS and the FSRS total score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 one-item forgiveness-seeking question. Finally, the FSSS and the FSRS total scores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xternal criterion variables (including life satisfaction, state anxiety, state anger,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FSS scores are associated with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Keywords: forgiveness-seeking scale, reliability, validity